

# 여순사건 아픔·역사 관광객에 알린다

### 엑스포역·오동도 기념관 등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여주시, 8일부터 운영

여주시가 오는 8일부터 여순사건의 아픔과 역사를 알리는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시티투어 운영을 시작한다.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은 여순사건의 발원지인 여수시에서 직접 개발한 시티투어 상품으로 관광객들과 여순사건 당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투어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소규모로 조성된 오동도 여순사건 기념관에 도착해 영상,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순사건을 대략적으로 이해한 뒤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한다.

인민대회를 열었던 이순신광장, 손가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서초등학교, 14연대 주둔지, 손양원목사 순교지, 만성리 형제묘·위령비를 찾는다. 14연대 주둔지는 당시 무기기로 사용됐던 동굴을 해설사의 설명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은 격주 수요일과 일요일, 월 4회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운영한다. 답승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1만원, 여수시민과 경로·장애인·군인·학생은 5000원이다. 시티투어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에 올리면 매달 추첨을 통해 선물이 주어진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주시는 여순사건의 아픔과 역사를 알리는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시티투어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여수만항등 만성리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여주시 제공>

일, 월 4회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운영한다. 답승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1만원, 여수시민과 경로·장애인·군인·학생은 5000원이다.

시티투어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에 올리면 매달 추첨을 통해 선물이 주어진다.

여주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새로운 역사 관광상품인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여수의 아픈 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탑승객 인원 조정,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으로 탑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순천시, 도심형 목재문화체험장 공사 박차

### 전시관·체험실·북카페 갖춰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

순천시가 내년 하반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목표로 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잡월드와 함께 연향뜰에 위치해 있어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도심형 산림·목재체험 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내부는 목재전시관, 기획전시실, 목공체험관, 유아놀이터, 북카페, 생애체험실, 카페, 목재체험실로 이뤄져 있다.

다양한 목공 전시품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R기술을 활용한 전시실로 더 생생하게 목재의 기능, 목재의 선순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아



순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조감도.

이들을 위한 유아놀이터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구성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심리적 안정, 집중력·창

의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체험 콘텐츠에 AR첨단 기술을 접목해 방문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며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갱신해 꾸준한 재방문을 유도하고 놀이와 학습이 어우러진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 분야 전문가들이 조성한 조경경관을 통해 목재문화체험장 입구에 설치된 벤치에서 순천의 사계절 정취를 느껴볼 수 있게 꾸민다.

순천시 관계자는 "잡월드·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천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귀농·귀촌인 38.9% "현재 생활 만족"

###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곡성군 귀농·귀촌인 38.9%가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한 '제2회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곡성군

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주와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다.

2018년 지역특화통계로 개발해 처음 실시한 이후, 3년 주기에 따라 올해 2회차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곡성으로 귀농 또는 귀촌해 사는 주민은 662가구 851명으로 나타났다. 귀촌은 419가구, 귀농은 243가구 등이고 거주 지역은 곡성권역 286가구, 석곡권역 144가구, 옥

곡권역 23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으로 전입하기 전 거주지는 광주(49.7%), 경기(11.8%), 서울(10.9%) 순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을 귀농·귀촌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고향이어서'가 35.7%로 가장 많았다.

귀농 가구 중 전입가능자는 49%였고, 나머지는 소득 부족 또는 사회생활 등을 이유로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는 겸업가능자였다.

조사대상자 48.8%는 현재 거주하는 곡성 지역에 만족을 느낀다고 답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 기자 노트

## 지리산 케이블카 환경부가 결정을



이진택

전남지역본부 부국장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발상은 2017년 10월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구례군에 콘도미니엄과 리조트, 골프장,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화엄사 아래에 올해 초가지 한화그룹이 운영했던 콘도와 리조트를 건립했고, 그곳으로부터 노고단까지의 케이블카 설치를 전남도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은 1983년 명성그룹이 해체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잡잡하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1990년대 산동면에 지리산온천이 개발되면서 재점화되기 시작해 30년이 흐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5년 7월 지리산온천랜드의 개장으로 탄력을 받은 케이블카 사업은 1997년 9월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허가 신청과 반려가 반복돼 왔고 올해 12월 구례군이 환경부에 다섯번째 신청을 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례군은 환경 훼손 지적에 따라 케이블카 노선을 기존 4.3km에서 3.1km로 줄이고 종착 정류장도 노고단에서 주변 중석대로 옮기는 변경 신청서를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구례군외에도 남원, 함양, 산청 등 인근 4개 시군이 모두 설치를 요구해 온 사안이다. 환경부는 4개 자치단체가 합의해 한

개 노선을 정해 오면 허가를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까지 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다. 이는 언뜻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지역 정서상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다.

입장이 난처한 환경부가 권한 행사를 뒤로 미루고 공을 자치단체에 떠넘긴다고 보아야 한다. 합의를 중용할 일이 아니라 법률과 규정이 정한대로 정확하게 공정한 잣대로 불허 허가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허가 반려시 마다 불은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비 등 비용이 수 억원 넘게 들어갔다. 그동안 4개 자치단체에서 쏟아부은 예산을 합하면 막대한 형세가 낭비됐다. 환경단체들은 4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못할 경우 당연히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계산해보면 케이블카 설치 환경에 더 살린다"며 허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결정할 때다. 자치단체나 환경단체의 눈치를 볼때가 아니다. 환경부는 가부를 명확히 해 행정력 낭비와 세금의 출혈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무엇이, 어떤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lit@kwangju.co.kr



## 보성 랜드마크 '붓재' 다시 불 밝힌다

### 'Cafe' 사인물·미디어글라스 설치

보성군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차문화 멀티플렉스인 '붓재'의 고객 유치에 시선 환경개선에 나섰다. <사진>

'붓재'는 '보성읍과 회천면을 넘나드는 고개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무거운 붓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를 담은 곳으로 카페, 차 연관 제품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성의 역사와 차(茶) 문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붓재 외벽에 'Cafe' 사인물을 설치하고 콘텐츠 융복합 사업 일환으로 미디어글라스를 설치했다.

미디어글라스는 군정홍보와 관광지 등 다양한 영상과 미디어아트를 LED 조명을 통해 선보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카페 내 LED 전광판 공사를 통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연출했으며 그린다향(카페)에는 빈백 소파를 마련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존 고객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보성의 랜드마크 붓재가 소통과 공감,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